

오늘의 주요기사

2022 11 28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의회

강원도민일보	27									1
江原日報	06								...	1
강원도민일보									...	2
강원도민일보	12								...	3
江原日報	12									4
江原日報								[1/2]		5
江原日報								[2/2]		6
江原日報	02							“ ”		7
강원도민일보	05	2		5	'	3	'		...	8
강원도민일보										9
<small>공인된 뉴스 서비스</small> NEWSIS										10
강원도민일보	03					가			...	11
江原日報	01								. 2,050	12
江原日報	03							“ ”		13
江原日報	21							“ ... ”	...	14
강원도민일보	02									15
강원도민일보	02								...	16
강원도민일보										17
江原日報	02									18
江原日報	04									19
강원도민일보	04									20
江原日報	04							“ ”		21
江原日報	01		'16			가				22
江原日報	23								... ' ' ..	23
강원도민일보	26					가 ...		가 ' ' ...		24
江原日報	19		[]		6	16			...	25
江原日報	19		[]		5				...	26

강원도민일보	23	[]	27
강원도민일보	23	[]	28

강원도민일보

2022 11 28 ()
27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 임시회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가 최근 경남 진주에서 권혁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강원도 의회의장) 과 의장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2 11 25 ()
06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열려 강원도의회 상정 안건 처리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24일 경남 진주 동방관광호텔에서 2022년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

강원도의회가 상정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집행 범위를 지방의원 연구단체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비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범위를 의원정책개발과 관련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 소규모 용역뿐만 아니라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이하늘기자

2022 11 25 ()

강원도민일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개발비 지원 개선 촉구

이설화



▲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지난 24일 경남 진주에서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가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지난 24일 경상남도 진주 동방호텔에서 2022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강원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과 ‘지방의회 공무원 우수·모범공무원 선발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가결했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설화

lof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2 11 28 ()
12



‘2022년 강릉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최근 세인트컨벤션에서 김홍규 시장과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시의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 주민자치위 유공표창 시장상에 김은희·이수양·김재익

특별자치도 성공출범 합심

강릉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 화합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릉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윤병섭)가 주관하는 ‘2022년 강릉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최근 세인트컨벤션에서 김홍규 시장과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시의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유공 표창 및 공로패 수여, 센터별장기자랑, 초청가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또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과 강원도자치분권위원장을 역임한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이 ‘특별자치시대 주민자치의 역할’을 주제

로 특강을 했다.

윤병섭 강릉시주민자치협의회장·김홍규 시장·권혁열 도의장·김기영 의장은 “32년만의 자빙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강릉발전의 꿈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장상= 김은희·이수양·김재익 △도의회 의장상= 최순희·최종태·고인규 △시의회의장상= 김진경·최관규·박종열 △협의회장 공로패= 김인련·김진태·박동주·김두수·장창환·최종혁·김만식·양은순·김흥래·안미란·정순교·한기남·김인숙·임흥규·이미라·엄영한·이명길·이종원·최돈태 △감사패= 임승빈 김우열

2022 11 28 ()
12

江原日報

예산 확보·현안 해결 찰떡 공조

도의원·강릉시 정책간담회 열고 협조체계 논의

【강릉】도의원·강릉시 정책간담회’가 지난 25일 강릉시청 8층 상황실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한 강릉 출신 도의원 및 시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는 민선 8기 정책현안 사업에 대해 지역 도의원과 공유하고, 내년도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에 대한 공조체계 방

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릉시는 민선 8기 지역 발전 계획안 등을 도의회에 설명했다.

특히 도청 제2청사 승격 및 옥계항 활성화를 위한 도 조례 제정, 향호 국가정원 조성, 강원역사문화진흥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권혁열 도의장과 박호균·심

오섭·김용래·최승순 도의원은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항만과 물류,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례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강릉시는 강릉 출신 도의장이 포진한 기회를 활용해 지역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권혁열 도의장은 “강원특별

자치도 시대를 맞아 지역별로 많은 변화·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주문진 해상 케이블카를 비롯한 관광인프라 조성 및 특례 발굴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다시 제일강릉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 등에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영재기자

江原日報

강원도의회, 강릉시 정책간담회 열려

25일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 상호 공조체계 강화
도청 제2청사, 주문진 케이블카 등 현안 논의



‘도의원-강릉시 정책간담회 가 지난 25일 강릉시청 8층 상황실에서 김홍규강릉시장,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한 강릉 출신 도의원들 및 시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 ‘도의원-강릉시 정책간담회 가 지난 25일 강릉시청 8층 상황실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한 강릉 출신 도의원 및 시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는 민선8기 정책현안사업에 대해 지역 도의원과 공유하고, 내년도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에 대한 공조체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릉시는 민선8기 지역 발전 계획안 등을 도의회에 설명했다. 특히 도청 제2청사 승격 및 옥계항 활성화를 위한 도 조례 제정, 향호 국가정원 조성, 강원역사문화진흥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권혁열 도의장과 박호균·심오섭·김용래·최승순 도의원은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항만과 물류,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례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강릉시는 강릉 출신 도의장이 포진한 기회를 활용해 지역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권혁열 도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지역별로 많은 변화·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주문진 해상 케이블카를 비롯한 관광인프라 조성 및 특례 발굴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의원·강릉시 정책간담회 가 지난 25일 강릉시청 8층 상황실에서 김홍규강릉시장,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한 강릉 출신 도의원들 및 시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다시 제일강릉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 등에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7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아산에서 헬기가 추락, 5명이 숨진 가운데 김진태 지사가 소방 관계자로부터 사고 상황을 듣고 있다.

김진태 지사 “양양 헬기사고 수습·원인 파악 전력”

사고현장서 수습 지휘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이 공동으로 임차해 운용 중인 산불 진화용 헬기가 27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에서 추락하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긴급회의를 연 후 사고현장에서 수습을 지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받으며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해 달라. 강풍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

비하고, 사고 원인 파악 등 강원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후 현장으로 이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김 지사는 권혁열 강원도 의장, 이병선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등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양양군에 사고수습본부 설치를 지시하고 현장상황관리관 2명을 파견했다. 강원도소방본부도 인력 140여명과 장비 40대를 동원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가족들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산림청과 지자체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겨울철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하면서 민간 임대를 포함해서 헬기 사용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풍 등 기상 변화를 세심히 파악해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탑승자들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다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최기영·이무현기자

강원도민일보

탑승신고 2명인데 사망자 5명 ‘이름없는 3명’에 수습 혼선

양양 헬기 추락 사고

양양군 헬기 추락 사고로 5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비행계획 신고 때만해도 2명만이 탑승으로 신고, 미신고 사망자의 탑승이유와 신원 확인을 놓고 소방당국 등이 애를 먹고 있다. 추락 이후 수차례 폭발음과 산불마저 발생, 지역 주민들도 하루종일 불안에 떨었다.

현장서 수차례 폭발음 주민 불안

당초 비행계획-실제 인원 달라

2명 시신훼손에 신원 파악못해

헬기 노후·탑승관리 놓고 논란

유족들 눈물만... 오늘 부검 진행

■ 추락과 동시에 불길 번져

양양군 현북면 여성전리명주사 인근 야산에 발생한 산불진화용임차헬기 추락사고 현장은 말 그대로 처참했다. 헬기 몸체는 완전히 부서지고 불에 타 형제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사고 현장에서 근처에서 편션을 운영하는 주민 A씨는 “뿡”하는 소리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와 보니 뒷산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증언했다. 또 “30여분 뒤 소방차와 산불진화 인력이 도착해 진화에 나선 후에도 수차례 폭발음이 이어져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인근에서 농사일을 하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B씨는 “헬기에서 산불계도용안내멘트까지 나오다 갑자기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곧바로 사고 현장에서 달려왔으나 불길이 야산으로

I 강원도내 헬기 추락 사고 일지

- ▶ 1992년 9월 14일
춘천 남면 산악지대 육군 500 MD 헬기 2대 추락 4명 사망
- ▶ 2007년 11월 5일
인제군 원리 육군 항공단 헬주로 LH-60 헬기 2대 공중 추돌 조종사 1명 사망, 21명 부상
- ▶ 2011년 5월 5일
강릉시 소금강 계곡 인근 산림청 소속 AS350-B2 헬기 산불예방 계도비행 중 추락 2명 사망
- ▶ 2014년 7월 17일
강원도소방본부 제1항공대 소속 AS350N3 헬기 세월호 사고현장에 파견 귀항 중 추락 5명 사망
- ▶ 2016년 2월 15일
춘천시 신북읍 울문리 인근 발육군 205항공대 소속 LH-1H 헬기 점검비행 중 추락 3명 사망·1명 부상
- ▶ 2016년 9월 27일
양양 동쪽 52km 해역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해군 윈스 해상작전헬기 1대 추락 3명 사망
- ▶ 2022년 11월 27일
양양군 현북면 여성전리 명주사 인근에서 민간 업체 트랜스헬리 소속 S-58T 헬기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 5명 사망.



옮겨 불고 사고헬기에서 불길과 폭발이 계속돼 마땅히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사고현장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이 수습되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이병선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는 일제히 현장을 방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 미신고 사망자 신원 확인 난항

더욱이 이번 사고는 당초 비행계획과 실제 탑승인원이 다르면서 피해자 신원 파악에 관련 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양양공항공출장소에는 2명 탑승으로 신고 돼 있었으나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5구의 시신이 발견, 신고 당시 3명이 누락된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가장 이모(71)씨는 출발 직전인 27일 오전 8시 51분쯤 양양공항공출장소에 연락해 산불 계도 비행을 알렸다. 당시 탑승 인원은 가장 이모씨와 부기장 김모씨, 20대 정비사 A씨까지다. 나머지 여성 2명은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정확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A씨 역시 헬기임차 업체의 확인 끝에 신원이 확인됐다.

신고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 간 차이가 발생하면서 비행계획서 제출방식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양공항공출장소 관계자는 “민간인들에도 개방돼 있기 때문에 구두나 서면, 팩스 등 비행계획서 제출방법은 여러가지라며 “기장이 제출하는 근거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는 제작한지 47년이 지난 기종으로 밝혀져 노후 헬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 유족들 오열

이날 오후 6시께 양양 장례식장에는 신원이 확인된 가장 A씨 정비사 B·C씨의 유족 8명은 장례식장의 확인이 어렵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고 싶다”며 안치실로 향했다. 사망자를 확인한 유족들은 “눈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며 “너무 심하다”고 눈물을 터뜨렸다. 다른 유족들도 “불쌍해서 어떡해”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사망자 5명의 시신은 28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속초시 노화동의 헬기 계류장에 주차된 정비사의 차량에서 지문 등을 수습했다. 속초시와 고성·양양군은 산불위험 시기에 매년 공중에서 방송으로 산불위험을 알리고 초동 진화활동을 진행해왔다. 사고 헬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계도 비행을 위해 계류장을 이륙한지 1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10시 50분쯤 양양군 현북면 여성전리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추락했다. 최훈·신재훈

강원도민일보

양양 헬기 추락 현장 살펴보는 김진태 지사

서영



▲ 27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헬기가 추락 5명이 숨진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이병선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등이 현장을 살표보고 있다.



▲ 27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헬기가 추락 5명이 숨진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이병선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등이 현장을 살표보고 있다.

27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헬기가 추락 5명이 숨진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이병선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등이 현장을 살표보고 있다.
서영

seo@kado.net

2022 11 27 ()

공/강/이/연/론/뉴/시스
NEWSIS

헬기추락 사고현장 찾은 강원도 지휘부



[양양=뉴스시스] 김경목 기자 = 27일 오후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왼쪽부터), 김진태 강원도 지사, 이병선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가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숲속에 추락한 산불진화 임차용 민간업체 헬리콥터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계자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양양군청 제공) 2022.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도민일보

2022 11 28 ()
03

오늘부터 도의회 예결특위 가동 내년도 예산안 본심의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상환액 2050억원 등을 시작으로 강원도·도교육청 예산 본심의에 돌입한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7차례 회의를 열고 올해 2회 추경경정예산 및 2023년도 예산안 본심의에 나선다.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일간 강원도 예산을,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등을 심

의할 예정이다. 도 산업국 소관인 GJC 보증채무 상환액 2050억원에 대한 심의는 28일 첫 번째 순서로 예정됐다.

강정호 위원장은 “채무보증 상환액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만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도의회는 28일 최재봉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를 초청, 제4회 강원아카데미를 연다. 최 교수는 ‘메타버스 시대 바뀌어야 할 3가지’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2 11 28 ()

01

경영진 교체·2,050억 상환

레고랜드 출구전략 속도

**도·떨린 GJC 인적쇄신 합의
내달 채무상환·새 대표 선임
도 회생신청 철회 가능성 제기**

속보=12월 중순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경영진 교체(본보 지난 25일자 4면 보도)와 2,050억원 보증채무 상환이 사실상 동시에 이뤄지며 GJC 회생신청 발표 이후 촉발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출구를 찾아가고 있다.

GJC의 최대 주주인 강원도와 2대 주주인 떨린사는 오는 12월1일 이사회를 열어 신임 대표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한다. 2주 내 임시 주총을 열어야 한다는 정관에 따라 12월 중순 신임 대표를 선임하게 된다. 비슷한 시기 GJC의 보증채무 2,050억원에 대한 상환도 이뤄진다. ▶관련기사 3면

강원도와 GJC는 회생신청 발표 이후 극한 갈등을 빚어 왔다. 경영진 교체가 일사천리로 이뤄진 배경은 2대 주주인 떨린사와의 합의가 결정적이었다. 당초 강원도와 영국 떨린사 간의 국제적인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떨린 측은 레고랜드 2단계 개발을 위해 김진태 도정과의 협조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GJC의 지분 44%를 보유한 대주주임에도 통제가 전혀 불가능했던 강원도 역시 2대 주주인 떨린사의 협조가 절실했다. 결

국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지난 21일 강원도와 떨린은 GJC의 인적 쇄신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다.

강원도는 이미 신임 대표로 복수의 인물을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GJC는 새 경영진이 임명되면 지금까지의 경영 및 계약 전반을 검증한 후 강원도가 대신 갚은 채무 2,050억원을 조기 상환하는데 경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가 GJC 회생신청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도 커졌다. 회생신청 자체가 GJC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계획과 달리 강원도가 먼저 빛을 갚아준 후 GJC로부터 이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순서가 바뀌긴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회생신청 계획의 목적은 일부 달성되거나 사실상 사라졌다. 강원도의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회생신청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정치적 명분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향후 강원도의 레고랜드 이슈는 장기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김진태 도정은 앞서 전임 도정이 체결한 강원도와 떨린사 간 총괄개발협약(MDA)을 불공정 계약으로 보고 검증 또는 재협상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거치며 떨린사와 신뢰 구축에 우선키로 합의하며 향후 재협상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최기영기자

2022 11 28 ()

03

江原日報

도의회 “레고랜드 보증채무 예산 심사숙고”

오늘 예결특위 심사 돌입

속보=예비심사를 통과한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상환 예산 2,050억원이 강원도의회 본심사를 앞뒀다. 다수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빚부터 갚자’는 의견을 일치시킨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강정호)는 28일부터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강원도 예산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

상임위 통과한 추경 2,050억
질의 첫 순서 잡고 논의 예정
“국가경제·도입장 충분히 고려”
여야 도당 전·현 도정 책임 공방

까지 나흘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심사한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예산은 제2차 추경안에 편성된 레고랜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이행금’ 2,050억원이다.

앞서 지난 23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김기철)에서는 도가 중도개발공사 대신 갚아주는 2,050억원과 관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상황을 위해 의결했다. 다만 빚을 갚은 이후 중도개발공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회생 신청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여기에 강원도와 갈등을 빚었던 중도개발공사 송상익 대표이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레고랜드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본심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예결특위는 보증채무 이행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자 관련 부서인 기획조정실장과 산업국장의 질의·답변 순서를 28일 첫 순서로 잡았다. 강정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도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강원도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예결특위는 강원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6조 7,420억원, 특별회계 7,808억원, 기금 1조3,392억원 등과 강원도교육청 내년도 예산 4조1,428억원, 기금 2조 1,109억원을 다룬다.

한편 여야 강원도당은 2,050억원 예산을 두고 공중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4일 “김진태 지사는 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2,050억원의 배상금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강원도민들에게 2,050억 빚 부담을 떠넘긴 것은 최문순 도정”이라며 “김진태 도정의 2,050억 채무상환 노력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레고랜드 선동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받아쳤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사랑으로 품은 위탁부모 감사... 아동 권리보장 힘쓰겠다”

도 가정위탁사업 보고대회
12명 부모·아동에 표창수여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남궁제정)가 주관한 ‘제6회 강원도 가정위탁사업 보고대회’가 지난 25일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빈곤 등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올 한 해 도내 가정위탁사업 활동과 성과를 보고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대회는 격려사와 축사, 사업보고, 유공자 시상, 후원기관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제6회 강원도 가정위탁사업 보고대회가 지난 25일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위탁부모와 아동, 후원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어 주신 위탁 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정부에서 복지 대상 아동들에게 복지시설 입소보다는 가정위탁보호사업과의 연계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앞으로 (가정위탁)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궁제정 관장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 참석해 주시고 지난 시간 동안 가정위탁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탁 부모들과 후원기관,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가정위탁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전삼순, 조현식, 이금실씨 등 위탁 부모 6명에 대한 강원도지사과 도의장 표창이, 6명의 위탁아동에게는 강원일보 사장, 한국 YMCA전국연맹 이사장 표창이 수여됐다. 또 조록우신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농협회사법인 발, 이마트 춘천점, 팀퍼머스 등 후원기관에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강원일보가 후원한 이날 대회에는 박관희 도의원, 허대영 춘천YMCA 이사장, 정동환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산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과 위탁부모·아동, 후원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도내 18개 시·군의 위탁아동은 624개 가정에 757명,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대상은 6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석기기자 sgtoh@



강원도민일보 창간30주년 기념식이 지난 24일 춘천스카이 컨벤션에서 열렸다.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진태 도지사와 참석자들이 30주년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서영

새출발 축하영상 각계 유명인사 출동

한승수 의장·권성동 의원협의회장
수영 황선우·항주일보 영상 전송

강원도민일보창간 30주년 기념행사에는 강원도민일보의 새 출발을 격려하는 저명 인사들의 축하영상이 쇄도했다.

춘천 출신 한승수 UN총회의장회 의장(전 국무총리)은 “자치분권 확보에 가장 앞장서온 언론사로서 특별자치도로 출발하는 강원 미래를 알차게 준비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언론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강원국회의원협의회장은 “지역을 넘어 중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일간지가 됐다. 디지로컬이라는 새로운 기치 아래 나서는 새로운 도전도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강원도민일보는 끊임없는 지면 혁신과 공공저널리즘구현에 앞장서왔으며 전국 지역신문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더

욱 발전하기를 성원한다”고 했다.

101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제 어른이 된 나이다. 변화가 성장이 되고 성장이 행복이 되어 대한민국의 도움을 주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양구 출신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는 “여러 어려움에도 전국에서 이름난 일간지로 발전시켜 온 임직원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며 축복했다. 화천 출신 국민가수 노사연씨와 강원도 청소속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 30년 독자 지성근씨도 축하인사를 보냈다. 25년간 우호교류 중인 중국 항주일보에서도 축하 영상을 보내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다시 창조해나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진형

2022 11 28 ()
02

강원도민일보

강원 각계 지역혁신 통한 전국·세계화 비전선언 공유

강원도민일보 비전 선언식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기원
각계각층 500여명 대거 참석

30 강원
강원도민일보는 지난 25일 춘천 스키컨벤션에서 창간 30주년 기념 및 디지털(Digital) 시대 새로운 시작 비전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김진하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양양군수), 김일용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고성군의회)을 비롯해 정치·사회·교육·경제·문화예술·여성·언론 등 각계의 강원지역 주요 기관단체장들과 애독자,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500여명이 대거 참석해 창간 3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임직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비전 퍼포먼스를 통해 △강원세상을 펼친다 △뉴스지평을 넓힌다 △지역의익을 지키는다 △특색자치를 키운다 △지역혁신을 이끈다 △향토가치를 높인다 등 6가지 미션을 공개, 신문뉴스의 지역 밀착화와 디지털 온라인뉴스 콘텐츠의 전국·세계화를 동시에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김현영 강원대 총장과 권혁승 백교선양사업회 이사장(전 서울

경제신문 사장)이 건배사를 통해 강원도민일보의 발전을 기원했다.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오직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울곧은 신문만들어보자는 결기로 힘든길을 걸어왔다”며 “지역밀착 뉴스와 함께 강원 콘텐츠의 전국화, 세계화를 이루는 저널리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30년동안 일관되게 도민들을 지켜온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한다”며 “강원도민일보가 100년이 될 때까지 도민이 사랑하는 신문으로 발전해나가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찬 부의장은 “향후 100년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잘 안착해 독자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균형잡힌 시각으로 진정한 언론의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진하 회장은 “도민의 이정표 역할로 30년의 역사를 이어오신 것을 축하를 넘어 큰 자랑”이라며 “도민의 믿음직한 동반자와 강원 울곧은 가치를 지켜왔듯 앞으로도 강원 대표 신문으로서 대안 제시, 따뜻한 격려를 해달라”고 했다. 김일용 회장은 “강원도민일보는 강원도의 여론을 모아 건전한 강원 발전을 이끌고 있는 강원 최고의 신문”이라며 “시·군의회도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진형 formation@kado.net
▶참석자·축하해주신 분 명단 26면



지난 24일 열린 강원도민일보 창간 30주년기념 비전선포식에서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과 직원들이 '디지털시대 새로운시작' 비전선언 버튼을 누르고 있다. 서영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교육위 청소년인생학교 방문

이설화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지난 25일 춘천 북산면 부귀리에 위치한 학교 밖 자체 배움터 및 복합문화공간 ‘청소년 인생학교’에 방문해 교육시설을 점검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지난 25일 춘천 북산면 부귀리에 위치한 학교 밖 자체 배움터 및 복합문화공간 ‘청소년 인생학교’에 방문해 교육시설을 점검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lofi@kado.net

江原日報

2022 11 28 ()

02

양양 오색케이블카 설치 기대감 고조

국민권익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대한 중재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이 사업현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권익위가 지 나서며 케이블카 건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5일 양양군 서면 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및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을 비롯한 권익위 관계자와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과 추진위 위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40년 정도의 숙원사업인 이 사업에 대해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며 “오래된 난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진위와 주민들은 “상부 정류장을 이전한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 등은 간담회에 앞서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예정지를 찾아 주변을 둘러보고 양양군

국민권익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 중재 나서 현장 간담회 개최... 추진위 “사업 조속 추진” 요구

으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

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봉우리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놓

고 갈등을 빚어 왔다.

한편 국무총리실이 이달 사업현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강원도와 양양군도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접수를 준비 중이다.

양양=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2022 11 28 ()

江原日報

04

항만·시멘트·정유업계 곳곳서 물류 차질

화물연대 파업 피해 커져

지역 조합원 중 67% 참여
오늘 국토부-연대 첫 교섭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며 강원도 내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강원지역 조합원은 400여명으로 전체 조합원 600여명 중 67%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강릉 라파즈한라시멘트, 동해 쌍용C&E, 대한송유관 공사, 영월 한일시멘트 등 도내 주요 산업단지 거점을 막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이 장기화되며 항만과 시멘트, 정유업계 등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동해항의 컨테이너 반출입은 26일 오후 5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차량을 통한 시멘트 출하도 중단되며 파업 후 도내 시멘트 업체의 일일 시멘트 수송량이 평상시보다 2만5,000여톤이 줄어든 5만톤으로 감소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도입,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총파업을 시작하자 27일 춘천의 한 화물차 차고지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박승선기자

주유소도 물량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강릉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55)씨는 “주말 이후에 현재 기름 재고가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내일부터 주유소 영업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10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구를 촉구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

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이후 또다시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불분명하고 물류비만 상승시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멘트와 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첫 교섭을 진행한다. 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파업 동향 및 피해 상황 등을 살피며 대응에 나섰다.

도 교통과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도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하림·류호준·강동휘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 11 28 ()

04

화물연대 파업에 레미콘·건설현장 쫓겨나 우려

차량 421대 1만1800t 분량 묶여
학교비정규직 합류 급식 대란도

속보=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 총파업에 돌입(본지 11월 25일 12면 등)한 지나흘이 지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사실상 멈춰 레미콘·건설현장에 쫓겨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도 이어져 도내 학교 곳곳에서 급식 대란도 빚어졌다.

27일 동해안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쌍용·한라·삼표 등 시멘트 3사가 하루 출하 물량은 약 5만9000t으로 이 중 60% 정도인 3만5400t 가량은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해상으로 곧바로 운송된다. 나머지 40% 정도인 2만3600t 정도가 육상으로 운송되는데, 이중 화차(열차) 운송을 제외하면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량에 의해 육

상으로 운송되는 물량은 1만1800t으로 BCT 차량 421대 분량이다.

BCT 차량 운행이 현재 전면 중단되면서 시멘트 제조사의 출하가 어려워지자 레미콘·건설업계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도내 레미콘 생산 공장 141곳이 레미콘 생산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시멘트의 양은 평균적으로 28일까지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건설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원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시멘트 확보를 위한 주문량이 대폭 늘었다”며 “월요일 이후 파업이 지속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레미콘 생산 불가로 동절기 마무리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한우농가에 공급되는 농협사료가 28일 이후 가동 중단 위기에 놓여 도내 전역의 한우농가 사료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농협사료 강원지사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사료 생산원료 반입이 중단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사일로(원동형 저장고)에 보관중인 사료 원료재고량은 28일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이후 사료생산은 물론 일선 한우농가의 사료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사료공급이 중단되면 민간사료로 대응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사육과 한우 등급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우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 중인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 총파업에 돌입, 이날 강원도내 학교 683곳 가운데 316곳(46.3%)에서 대체 급식을 실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으로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진행한다.

박창현·정민엽·신재훈

“신규 교사 지역구분 임용제도 도입 필요”

도시-농촌 간 쏠림현상 방지 등 위해 필요성 제안
교원 1,645명 설문조사 결과 토대로 타당성 검토

도시와 농촌지역 간 교사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에 오래 머무는 교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신규 교사 채용시 지역을 구분해 임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구분 임용제를 통해 선발된 교사는 임용된 날부터 8년간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강원도교육연구원의 ‘강원도신규 교사 지역구분임용제도에 대한 기초 연구’에 따르면 강원지역 교사 1,645

명을 대상으로 근무 여건 및 전보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분석한 결과, 근무지와 생활근거지가 같다고 답한 응답자는 857명, 63.4%였다.

하지만 벽지 및 농어촌지역의 경우 근무지와 생활근거지가 다르다고 한 응답자는 각각 67.3%(181명), 52.1%(201명)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그 외 지역은 근무지와 생활근거지 간 일치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83.9%로 높았다.

도내 시·군 중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로는 원주와 춘천, 횡성, 강릉, 홍천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인 프라 및 교육생활여건이 비교적 잘 구축된 도심 지역들이다.

반면 비선호 지역은 철원과 고성, 태백, 삼척, 정선 등이 꼽혔다. 대부분 농어촌 지역들이다.

연구진은 “지역 간 교사 쏠림 현상과 함께 생활근거지와 근무지의 불일치로 인한 교사의 사기 저하를 해소하고 지역에 오래 머무는 교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구분 임용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별 제한이 없어 운영이 용이한 초등학교급부터 도입해 그 실효성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험전형을 다양화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선영기자

江原日報

2022 11 28 ()
01

‘16강 분수령’ 오늘 가나전에 승부

벤투호 밤 10시 조별리그 2차전 첫 승 사냥 나서



FIFA WORLD CUP
Qatar 2022

‘아시아의 호랑이’ 한국 축구 대표팀이 다시 한 번 첫 승 사냥에 나선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8일 밤 10시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가나전을 치른다.

▶ 관련기사 23면

지난 경기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대등한 경기 끝에 무승부를 거둔 한국은 승점 1점으로 조 공동 2위에 올라 있고, 포르투갈에 패한 가나는 승점 0점으로 조 최하위에 처져 있다.

조 편성이 결정된 당시부터 가나는 한국이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대였다. 반대로 가나 역시 한국을 1승 제물로 생각하고 있다. 피파랭킹은 한국 28위, 가나가 이번 대회 참가국 중 가장 낮은 61위에 위치해 있지만 상대 전적이 3승 3패일 정도로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한국은 이전까지 10번의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과 세 차례 맞붙어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다. 가장 최근에 아프리카 팀을 상대했던 경기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알제리전으로 당시 2대4 참패를 당한 바 있다. 춘천 출신 장지현

SBS 축구 해설위원은 대회 개막 전 본보와의 통화에서 “1차전에만 집중해 2차전을 간과하면 알제리 참사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보여준 수비 집중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권순찬기자 sckwon@

오늘의 월드컵

한국시간

카메룬	G조 28일 19시	세르비아
대한민국	H조 28일 22시	가나
브라질	G조 29일 1시	스위스
포르투갈	H조 29일 4시	우루과이

황희찬·김민재 부상 악재 ... 어깨 무거워진 ‘캡틴’ 손흥민

H조 조별리그 2차전 상대팀 전력 비교
28일 밤 10시(한국시간)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

대한민국		VS	가나	
*최고성적 4위(2002년) 11회 2 1 1	역대 월드컵 성적 본선 진출 16강 진출 12강 진출 4강 진출		4회 2 1	
파울루 엔루(53세, 포르투갈 출신) 손흥민(MF, 30세 183cm 포르투갈)	감독 김득오 주장 앙드레 아유(FW, 33세 175cm 몰디브)		오토 아도(47세, 독일 출신) 앙드레 아유(FW, 33세 175cm 몰디브)	
아시아 A조 2위 (7승2무1패, 13득점/3실점) 3승3패(8득점)	카타르 월드컵 예선 성적 역대 전적(아시아) 28위 27.8세 181.0cm 약 2,200억원 4-2-3-1		아프리카 G조 1위 (4승1무1패, 7득점/3실점) 3승3패(11득점) 61위 24.9세 179.5cm 약 2,890억원 3-5-2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현지시간)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이 카타르 도허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가나 수비진 약점 공략 관건
벤투 “황희찬 오늘 못 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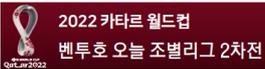
가나와 치르는 2차전은 한국의 16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경기다. 우루과이와 비기며 첫 경기에서 승점 1점을 획득했기에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16강 진출의 7부 능선을 넘게 될 전망이다. 가나는 H조에서 한국보다 피파랭킹이 낮은 유일한 팀인 만큼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한다. 하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가나는 조 편성 당시만 해도 전력이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이나키 윌리엄스(아틀레티코 빌바오), 램프티(브라이턴) 등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귀화시키며 전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나키 윌리엄스와 함께 안드레 아예우(알 사드)-조르망 아예우(크리스탈 팰리스) 형제가 이끄는 공격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수비에서는 약점을 보이기도 했다. 포르투갈에게 수비 뒷 공간을 계속 내주면서 3골이나 실점했다. 한국으로서의 가나 수비진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힘든 경기가 예상된다. 스트링 부상으로 1차전에 결장했던 핵심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프턴)이 27일 팀 훈련에 복귀하면서 손흥민(토트넘)과 힘을 맞춘 공격력 상승을 기대했지만, 가나전 출장은 어려운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또 우루과이전에서 엄청난 수비력을 선보인 핵심

수비수 김민재(나폴리)는 경기 당일 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민재는 우루과이전 때 후반 18분 우루과이 역습 상황에서 상대 다르윈 누녜스를 저지하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종아리를 다쳐, 이후 개별 훈련을 주로 해 왔다. 파울루 벤투 축구 대표팀 감독은 27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가나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황희찬은 내일 뛰지 못한다. 김민재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한편 대회 7일자인 27일 오후 5시 현재까지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팀은 단 한 팀이다. 다렌딩 캄피언 프랑스가 27일 열린 D조 2차전에서 말타골을 기록한 음바페의 활약에 힘입어 덴마크를 2대0으로 꺾고, 가장 먼저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전 대회 우승팀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는 ‘다렌딩 캄피언의 저주’를 깼다. 1차전에서 사우디에 총격패를 당한 아르헨티나는 메시(이상 파리생제르망)의 1골 1도움 활약에 힘입어 16강 단골손님 멕시코를 2대0으로 꺾고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같은 조에 속한 폴란드는 드디어 월드컵 첫 골을 터트린 레반도프스키(바르셀로나)를 앞세워 사우디를 2대0으로 잡았다. 우승후보 1순위 브라질 역시 1차전에서 난적 세르비아를 2대0으로 이겼고, 잉글랜드는 2차전에서 미국과 비기며 16강 확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권순진기자 sckwon@

강원도민일보

2022 11 28 ()
26

황희찬 출전 불가능... 이강인 가나전 '비장의 무기' 될까



벤투 감독 기자회견서 발표
주축 수비수 김민재도 불안
손흥민 측면 돌파 활용 기대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선전을 펼치며 승점 1을 따낸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제는 아프리카의 북방 가나와의 일전을 준비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알에듀케이션 시티스타디움에서 가나와 2022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 나선다. 이번 2차전에서 벤투호는 FIFA 랭킹 61위로 H조 2차전 중 가장 낮은 가나를 '1승 제물'로 여기고 있고 가나도 H조 안에서 가장 승리를 노려볼만한 상대로 한국을 꼽고 있어 치열한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햄스트링(허벅지뒤 근육) 부상 중인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프턴·춘천출신)은 조별리그 2차전에도 뛸 수 없다. 벤투감독은 27일 카타르 알라이안알의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가나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기자회견에서 "황희찬은 내일 뛰지 못한다. 김민재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황희찬과 주축 중앙수비수 김민재(나폴리) 출전이 불투명해지면서 '마스크 투혼'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춘천출신)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다만 '뿔뿔 보이' 이강인(마요르카)이 2경기 연속 출격을 준비하며 새로운

공격자원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우루과이전에서 후반 30분 교체로 투입해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이강인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부지런히 뛰었고,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뚫으며 자신도 벤투호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가나는 1차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무소속)를 앞세운 포르투갈에 2-3으로 쳐 현재 순위는 H조 4개 팀 중 최하위(승점 0)다. 눈여겨 볼 점은 후반 느슨해진 수비진이다. 전반에 비교적 잘 유지되며 포르투갈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던 가나 수비 조직력은 후반 들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첫 페널티킥골 이후 두 골은 모두 역습 상황에서 침투 패스를 허용하면서 나왔다. 측면 수비의 헐거움도 여러 차례 노출돼 손흥민을 비롯해 돌파가 뛰어난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심예섭**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손흥민 등 선수들이 26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 대비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江原日報

2022 11 28 ()

/ 19

전통시장 6년간 16개 소멸, 회생 방안은 없나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이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996년에 국내 유통시장이 개방된 후 그간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는 크게 성장한 반면 전통시장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강원도 내 전통시장 16곳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세력을 확장하며 시장의 역할을 대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강원도 내 등록된 전통시장은 59개로, 도내 전통시장 수가 가장 많았던 2014년(75개)과 비교해 16개(21.3%) 줄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68개였던 도내 전통시장은 꾸준히 늘어 2014년 75개를 기록했으나 이후 다시 급감, 60개 아래로 떨어졌다. 전통시장 특유의 매력을 살리는 등 회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전통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제도적 지원이 힘을 발휘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장점을 살려내야 한다.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대형마트와의 경쟁으로는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래(在來)가 붙는 말은 왠지 서글프다.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온 것'이란 게 이미 신식, 첨단에 밀려날 운명

임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시골 재래식 화장실처럼 재래는 기피 대상이 됐다. 그래서 재래란 말은 대개 케케묵고 비능률적이며 불편한 것에 붙는다. 하지만 둘러보면 재래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시장마다 전문 품목 등 나름의 특색이 있지만 한결같은 것은 푸근함, 정겨움이다. 그곳엔 상인과 손님들이 나누는 구수한 입담과 곱죽한 수작이 있다. 시장 풍경은 아련한 추억의 창고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래서 재래시장을 생활 속 타임머신이라고 했다. 재래시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곳도 분명 있다.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정선시장 등 전통시장의 인기는 매우 높다.

이는 지역 전통시장들이 점차 '라이프스타일형 관광'을 추구하는 수요자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장소성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품질 좋은 재화를 저렴한 가격에 사고파는 '상인과 고객 중심의 장소'에 덧붙여 지역 문화적 감성을 있는 그대로 외지 관광객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체험적 소비를 유도하는 관광지로서의 장소적 성격을 부여받는 중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의 발상이 중요하다.

江原日報

2022 11 28 ()
/ 19

헬기 추락 5명 사망,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 공동 임차한 헬기가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 비행 중 27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으로 추락해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헬기의 블랙박스

와 음성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기체 결함, 정비 불량, 조종 미숙, 악천후 비행 등 통상적인 헬기 사고의 요인들을 두루 살펴 사고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려내고 더는 단 한명의 국민도 헬기 사고로 잃는 가슴 아픈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은 인명 피해를 낳는 헬기 추락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올 5월에는 경남 거제시에서 숲길 조성용 자재를 운반하던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중 가장

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헬기는 인근 헬기장에서 정자를 만들기 위한 자재를 옮기고 철거 자재는 다시 회수하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 이후 국내 발생 주요 헬기 사고는 30여차례에 달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했다. 헬기 추락 사고는 그만큼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불러온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이번 참사 원인을 철저히 밝혀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계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고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그간 소방청이 요청해 온 대형 헬

기 도입 등 안전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산불 진화와 산악지역에서는 헬기의 역할이 중요하다. 산불 진화, 구조, 구급을 비롯해 갈수록 헬기를 이용할 일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목적 소방 헬기 신규 도입을 위한 예산을 아까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노후 헬기 교체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실제 산불 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차 헬기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임차 헬기는 70대에 불과하고 평균 기령은 35년에 달했다. 또 산림청 보유 헬기 중 60%가량인 28대가 기령이 20년을 넘은

27일 산불 예방 계도 중 양양 야산에 떨어져

원인 밝혀 재발 방지 주력하는 것이 중요

한명이라도 잃는 비극 더는 일어나지 말아야

노후 기체로 초대형 헬기는 평균 7.2시간마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후 헬기의 교체가 시급하다.

노후화된 헬기 교체와 우수한 조종 인력 확보 등 추락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특히 낡은 비행기에 목숨을 싣고 날아다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헬기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소방대원들에게 매일 목숨을 걸라고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익 복무자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계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2 11 28 ()
/ 23

대학생 강제징집 철저 규명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전반적 조사 필요

1970~80년대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이 강제 징집하고, 협박과 회유를 통해 프락치로 활용한 사건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일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강원도내에서도 20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명 '녹화사업'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의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조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강제 징집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강제 징집 및 프락치 사건의 조사는 진행됐지만 국가가 개인별 피해 사례를 조사해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조사 결과 강제 징집자 대부분은 보안사로 끌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사상 전향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습니다. 진실 규명 대상 신청자들은 강제징집과 녹화 공작 과정에서 불법체포·구금, 폭력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의 경우 1982년 5월 '강원대 성조기 소각사건'으로 최재관씨 외 6명이 강제 입영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

건은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비롯한 반미시위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위가 언론 통제로 이슈화되지 않자 춘천에서도 '강원대 성조기 소각사건'으로 이어져 강원지역 운동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군복무 당시 녹화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으며, 전역 이후에도 담당 형사들로부터 활동 동선 등 동향 파악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훈련소 시절부터 보안대 분소에서 나와 동향을 파악했고, 휴가 중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해야 했다고 합니다. 의문사로 숨지거나 프락치 활동을 하며 고문과 구타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반적인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제 징집과 프락치 활동 강요는 공권력이 한 인간의 인권을 침탈한 행위입니다.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과거이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 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배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파악된 사례 등을 토대로 국방부에 개인별 피해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결과에 따라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2 11 28 ()
/ 23

기형적 수도권 비대화에 맞설 것

-창간 30주년 본지의 약속과 강원도 미래(하)

지방자치제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됐는데도 서울 중심의 수도권 비대화는 더 극심해졌습니다. 중앙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세적이고도 확고한 정책을 펴지 않는 사이에 불균형, 불평등적인 국토개발 구조가 고착화되고 심화됐습니다. 수도권 신도시가 끊임없이 개발 조성되면서 국토면적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88%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몰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습니다.

2022년말 기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435개 기업 중 절반 이상(53%)이 서울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에 80%가 몰려있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꺼내놓기도 민망한 수치인 불과 6개 기업 1.4%였습니다.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2017년부터 비수도권보다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현상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 위주로 창출됨으로써 청년 인력이 대거 지역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래 강원도는 고용률은 늘었지만 주로 단기근로 일자리에서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 쏠림 현상은 지역 쇠퇴를 부채질하는 주요인입니다. 산업연구원의 11월 최근 조사 발표에서도 강원도는 전국 3대

소멸위기 광역자치단체로 지목됐습니다. 전국 59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전라남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생 수를 충족하지 못한 지역대학이 아우성을 치며 위기를 맞은 지도 오래입니다.

본지는 창간 30주년 여정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먹는 국토의 불균형,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국토불균형 구조는 비수도권 지역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역시 삶의 질을 악화하는 유리할 것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대학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를 향해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구가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는 서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선순환 지역 경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첨단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청년 인구가 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비대화 구조 타파 없이는 지역 미래가 암울한 점을 직시하고 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더 목소리를 높일 것을 약속드립니다.